

# 인문출판의 지나친 상업주의 경계해야

필자 발굴과 독특한 출판기획으로 새 지평을 열자

조한욱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문학 출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숨은 필자의 발굴과 각 출판사만의 독특한 기획에

힘써야 한다. 결국 기초적인 학문에 투자하는

일이야말로 출판의 고유한 사명을 다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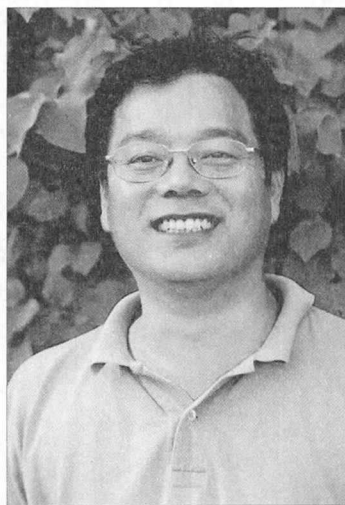
일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살아남는 길이다.

출판이란 항시 갈등을 느껴야 하는 직종으로 보인다. 문화의 창달을 위해 진력해야 하는 한편,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한 배려도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두 목적이 조화를 이룬다면, 그것이 이뤄지는 곳이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솔한 경험이 말해주듯, 학술서적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출판의 채산성을 맞추는 일은 이뤄지기 어려운 환상처럼 보인다. 더구나 독자층이 한결 제한돼 있고 출판업계의 재정적 형편이 어려운 인문학 분야에서 그 두 목적의 결합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인다.

이런 마당에 주로 인문학 분야의 서적을 발간하는 출판사에 드리는 요청의 글은 출판계의 속사정을 모르는 일개 '백면서생'의 꾸밈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가치있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 출판사들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문학 출판업계의 발전을 위해 몇 마디 제언하려 한다.

## 숨은 필자 발굴해야

먼저, 필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국내서적이건 번역서건 출판업계에서는 이른바 한번 '뜨' 작가들의 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출판사에서는 이미 그들에 대한 학문적인 평가와 상업성이 모두 검증됐



조한욱 교수

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향은 몇가지 폐단을 안고 있다. 먼저 국내작가의 경우, 한번 명성을 얻게 된 작가는 곧 다작을 하게 된다. 다작이 작품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번역서의 경우에는 한 작가의 저서가 유명세를 탈 경우 그의 다른 저작들이 덩달아 출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우리의 독서대중에게 지적 편식의 버릇을 길러줄 공산이 크다. 얼마나 많은 학문 분야에 걸쳐 얼마나 많은 대가들의 명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세를 탄 유명한 저술가들의 저작에만 매달려 정신적 지평선을 넓힐 기회를 잃도록 우리 출판계는 방조했는가! 세상은 넓고 숨은 인재도 많다. 그 숨은 보석을 찾아내 갈고 닦는 일에 출판업계가 앞장 서기 바란다.

다음, 각 출판사마다 자신의 독특한 색깔을 갖고 특유의 기획을 펼치기 바란다. 어떤 기획물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면, 그 기획물의 인기에 영합해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독자들은 원래의 기획물과 그 아류 사이에서 스스로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지며, 기획물 자체에 대해 식상하게 되기 쉽다. 이런 현상은 결국 그 기획물 자체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며, 원래 기획을 시도했던 출판사와 아류 출판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다른 출판사에서 성공한 기획에 편승하는 것은 단기적인 수입의 증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출판업계 전체를 허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 기초학문에 투자해야

번역서를 출판할 때 일어나는 과도한 경쟁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장사가 될 듯 싶은 외국서적이 있을 경우, 국내 출판사들 사이에 경쟁이 붙는다. 무분별한 과당경쟁은 외국의 출판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높이고, 높아진 로열티의 반대급부를 출판사들은 대체로 번역료에서 감한다. 그 결과 번역자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번역기피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가 우리의 문화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총괄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지나친 상업주의 경계하라는 논지로 귀결된다. 출판사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눈앞의 이익에만 신경 쓸 경우, 그것은 학문의 수준을 낮추고 그 결과 독서 대중의 수준을 낮춰, 궁극적으로는 독서에 대한 관심을 희박하게 만들고 출판업계의 자산 자체를 고갈시키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기초적인 학문에 투자해 육성시키는 일이야말로 출판업계 본래의 고귀한 사명을 다하는 일임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 충언을 일개 백면서생의 객담으로만 치부하지 말기 바란다. ●